

# 그때, 보잘 것 없었지만 아름다운

전일광장

정상연  
문화박사



벌써 5월이다. 올해 5월은 보통 때와 다른 느낌이다. 이맘때쯤은 지역마다 기온의 차이는 있었지만 여름을 준비하는 계절이라 할 수 있다. 여기저기에 꽃들은 만개하고 햇살에 비친 나뭇잎들은 더욱 선명한 색으로 반짝이며 봄날의 아름다운 풍경을 꾸민다.

적당한 기온과 상쾌한 바람은 해맑게 뛰노는 어린이들의 웃음소리와 뒤섞이고, 가벼운 옷차림의 젊은 청춘들의 발걸음은 담백하듯 붉은 장미꽃과 어우러져 도심의 봄날을 한층 멋스럽게 치장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기후 변화로 인해 아름다운 계절이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여러 기관에서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9℃ 높았다고 5월이면 30℃를 넘나든다고 설레발을 떨었지만, 되려 지금은 감기를 조심해야 할 정도로 조석의 찬 기온은 여전하고, 주말이면 비바람으로 우리의 일상과 생체리듬이 온전치 않다.

이러한 날씨만큼이나 우리의 일상에 위협이 되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한국 사회는 다양한 사회 현상으로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혼란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마저 뒤흔든다. 민생과 경제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안위와 정치적 이득만을 위해 국가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소명마저 내쳐버린 것 같다.

경제와 사회 문제가 만만치 않다. 최근의 국내 경제는 미국 관세 인상과 소비 감소 등 실물 경기가 침체 되고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문제도 복지 예산 증가, 세대 간 갈등 등 다양한 불안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SNS와 스마트 폰의 남용은 익명성에 의해 가짜 뉴스, 사이버 폭력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다.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할 수 있는 교육마저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과 입시제도가 변하고, 100년을 내다보아야 할 교육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결여되면서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까지 큰 혼란을 겪게 하고 있다

이처럼 내일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현실은 많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과거로 회귀시키고 있다. 우리는 종종 옛 추억을 되새기며 “그래도 그때가 참 좋았어!”라고 사람 냄새 났던 지난 시간, 보잘 것 없었지만 아름다웠던 시간의 아쉬움을 달래곤 한다. 그 시절에 대한 후회나 자기반성이라기보다는 지금 삶의 본능적 발로인 것이다. 과거의 기억은 인간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형성함과 동시에 개인의 경험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

다.

보통 과거로 회귀하고 추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발전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과거의 추억을 그리워하는 감정은 우리의 삶에 깊이를 더하고, 현재를 더욱 소중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과거는 오래된 시간이 아닌 오늘의 시간이며 내일의 시간이 되는 것이다. 추억은 오늘을 반성하고 이해하는 과정이자 내일을 다시 설계하는 기회인 시간이다.

우리가 100년, 200년 전의 예술이나 문학 작품을 읽고, 보고 듣는 이유도 그것이 단순한 예술이나 미학적 감성의 유희라기보다는 시간과 공간의 조화와 미적 가치 그리고 시대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를 기억하고 반추하는 것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가 되며 무엇보다 인간 존재의 본질적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각자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가는 소중한 자산이다.

AI가 인간의 일을 대신하고 온갖 정보를 내어놓고, 기후위기가 생체리듬을 흔들며 건강을 위협하는 이때, 정치적 혼란과 경기 침체로 미래가 보이지 않고 각박해지는 이 시기에 사람 냄새 났던 시간, 보잘 것 없었지만 아름다웠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인간미를 되살리는 시간들을 가져보자.

이것이 ‘과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 것이다.

## 社說

### 제주항공 참사 4개월, 당국 뭐하고 있나

#### 진상규명 등 정보 공개해야

12·29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유족과 법률 지원을 맡은 광주·전남 변호사들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공항공사대표 등 참사 책임자 15명을 형사 고소했다. ‘제주항공 참사가 위험에 대한 소홀한 관리가 초래한 중대시민재해인 만큼 진상규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유족 72명과 법률지원단은 사고 경위에 관한 의혹으로 조류총돌 직후 복행 시도 이유, 복행 직후 기수를 180도 꺾어 긴급 동체착륙한 이유, 관제탑 대응의 적정성, 엔진 유지관리 적정성, 활주로 문턱의 설치·관리 및 보강공사 규정 위반 여부, 블랙박스 기록이 멈춘 뒤 사고기가 동력이 필요한 복행한 점 등을 제시했다. 피고소인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공항공사대표, 서울·부산항공청장을 비롯해 제주항공 대표이사과 정비·안전 담당자, 무안공항 설계·시공·감리·시설관리·조류퇴치 책임자 등 총 15명이다. 적용 혐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항공안전법·공항

시설법·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이 다.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는 슬한 위험신호를 무시해서 일어난 인재(人災)다. 비행기와 충돌한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조류 퇴치에 진즉 신경을 썼더라면 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무리한 운항으로 인한 정비 불량이나 누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 의문도 제기됐다. 사고기는 48시간 동안 13차례나 운항했다고 한다. ‘참사 4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는 현실에 깊은 분노와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유가족의 절규도 가슴 아프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다.

유가족이 형사 고소라는 특단의 조치를 결단한 이유는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들의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은 신속하게 진상 규명에 나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도 처벌해야 한다. 그것이 피해 유가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 다.

###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시급하다

#### ‘공간’ 고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전남개발광사가 최근 ‘전남형 외국인 근로자 주거모델 수립 세미나’를 개최했다. 외국인 근로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대책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환영 만한 움직임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는 핵심 노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단순한 ‘대체인력’이 아닌,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떠받치는 동력이라는 점에서, 그들이 머무는 ‘공간’에 대한 고민은 더는 미룰 수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전남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5만 7000여 명으로, 2020년에 비해 72% 늘었다. 이 가운데 비전문취업(E-9) 비자 소지자 비중은 20%에 달하며, 상당수는 여전히 빌라하우스나 컨테이너 등 열악한 임시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름철 폭염, 겨울철 혹한, 위생 취약성 등을 고려하면 이는 명백한 인권 문제이자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취약점이

다. 특히 일부 농촌에서는 숙소가 부족해 근로자가 장거리 통근을 감내하거나, 불법 개조된 건물에서 생활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크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는 일시적 인력이 아닌, 지역경제를 함께 책임지는 ‘생활 동반자’다. 따라서 그들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부터 정비해야 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안된 ‘산업별 맞춤형 지원체계’, ‘공공-민간 협력 모델’, ‘지역 정착형 주거모델’은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보인다. 전남도와 각 시군은 지역주택조례, 주택공급계획에 외국인 근로자 주거 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 기존 공공임대 외에도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공동숙소로 활용하는 방식 등도 고려할 만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된 삶은 곧 농업·어업·제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돼 있다.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의 시대, 이제는 지역사회가 이주민과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은 단순한 복지나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맞이한 현실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다.



#### 사진으로 보는 세상

미국 국기를 든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인들이 12일(현지 시간) 미 버지니아주 델레스에 있는 델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이날 아프리카(16세기 이후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 남아공으로 이주해 정착한 백인) 59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취임 뒤 사실상 난민 수용을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남아공 백인의 난민 지위를 인정해 미국 내 정착을 허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AP/뉴시스

#### 서석대

혁명은 총칼로 시작되지만, 기억은 문화와 문화로 살아 남는다. 1789년 프랑스혁명이 낳은 수많은 기록 중, 가장 오래 남은 목소리는 법령도, 정치 문서도 아닌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이다. 장발장과 가브로슈의 서사는 단순한 허구를 넘어, 억압받는 민중의 고통과 인간 존엄, 저항의 윤리를 상징하는 존재로 남았다. 위고는 파리 봉기와 혁명의 폐허 속에서 ‘기억의 윤리’를 문화로 엮었다. 가브로슈가 쓰러진 길목은 그 어떤 전승기념물보다 강한 상징이 됐고, 프랑스 시민들은 문학 속 인물을 통해 자신들의 역사와 마주할 수 있었다.

레 미제라블이 프랑스혁명의 가치를 보존한 문학이라면, 한국의 5·18은 ‘소년이 온다’로 주목받고 있다.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이 소설은 도청에 남아 희생된 ‘소년 문제학’을 모티프로, 죽음 이후에도 살아 남는 자들의 고통과 침묵, 윤리를 따라간다. 이 작품은 13개국에 번역돼 광주의 비극을 세계에 알렸고, 유럽과 아시아의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독일 주간지 ‘디 차이트’는 “한국의 광주가 세계의 광주가 됐다”고 평했다. 이는 단순한 감동을 넘어, 세계 시민들이 광주의 진실 앞에서 연대하는 문화적 순간이었다.



#### 문화가 만든 5·18

5·18은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넘어서, 전국화와 세계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진실을 알고, 그 진실을 지키는 방식은 이제 예술과 문학의 언어를 통해 더욱 확장되고 있다. 황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는 최초의 민중기록문학으로 생존자들의 구술을 담아냈고, 임철우의 ‘봄날’은 각기 다른 시선으로 5월을 다시 썼다. 이들은 단지 상처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곡에 맞선 사회적 증언이자 다음 세대를 향한 윤리의 문장이다.

최근에는 황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아시아권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번역하고, 해외 대학에서 ‘소년이 온다’를 교재로 읽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5·18은 더 이상 지역의 사건이 아니다. 광주의 5월은, 문학과 예술을 통해 세계적 기억으로 확장되고 있다. 2025년은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날의 진실을 되새긴다. 그리고 바란다. 또 다른 5월이 미래의 누군가에게 진실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더 강한 언어와 예술이 필요하다고. 문화는 장르가 아니라, 연대를 이끄는 감정의 언어다. 우리는 5월의 진실을 오늘의 언어로 말해야 한다. 말하는 것, 기억하는 것, 그리고 예술로 다시 쓰는 것. 그것이 곧 민주주의다. 김성수 논설위원

<b>全南日報</b>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